

성찰 관련 국내 간호연구 동향분석

이미경¹ · 장금성²

원혜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¹, 전남대학교 간호대학²

Reflection-related Research in Korean Nursing: A Literature Review

Lee, Mikyoung¹ · Jang, Keum-Seong²

¹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 Graduate School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earch on reflection in Korean nursing,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in Korean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Methods:** A review was performed using domestic databases including RISS, KISS, DBpia, and NDSL. Twenty-three pap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 and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 **Results:** Reflection in nursing research has received attention since 2005, generating almost half the publications in the last 3 years.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 were classified into 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34.7%), reflective action (8.6%), and reflection writing method (56.7%).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 were categorized into 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26.1%), 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22.2%), 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47.4%), and 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dation (4.3%).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reflection or reflective practice is an important component in integrating theories to practice, and that reflective practice is a prerequisite to becoming a professional nurse as well as a crucial tool for ideal changes in nursing. Considerable effort should be made to define the concept of reflective practice and effectively apply it to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in Korea.

Key Words: Reflection; Reflective practice; Nursing education; Nursing practic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찰(reflection) 및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은 여러 학계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으며[1-4], 간호학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 지난 20년간에 걸쳐 간호학에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5-8]. 교육학 분야에서 일찍이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Dewey [1]는 성찰

(reflection)이란 어떤 신념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비추어 신념이나 지식 형태에 대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중한 반성적 사고이며, 확고한 근거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신념을 확립하려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성찰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험이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교육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성찰이란 합리적인 담론을 통해 의도적 학습, 문제 해결 및 타당성 검증의 핵심이 되는 과정으로, 의도적인 학습은 주로 경험의 의미에 대한 설명 또는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사려 깊은 활동에의 적용과 관련이

주요어: 성찰, 성찰적 실천, 간호교육, 간호실무

Corresponding author: Jang, Keum-Seong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61469, Korea.

Tel: +82-62-530-4955, Fax: +82-62-220-4544, E-mail: jangks@chonnam.ac.kr

Received: Dec 12, 2018 | Revised: Feb 11, 2019 | Accepted: Feb 26,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있다[9].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Schön [3,4]에 의하면 성찰적 실천이란 전문가가 인지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전문적인 실무행위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추후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개인의 학습과 발전 및 성장을 이루게 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의 개념을 간호학에 적용시켜 보면,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실무 행위에 대해 되돌아보며 숙고함으로써 간호 상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향상시켜 추후 간호실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이러한 특성을 지닌 성찰적 실천을 간호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간호사는 자신의 간호실무를 향상시켜 유능한 간호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실천경험에 근거한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환자간호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역량개발에 중요한 교육방법으로 강조된다[11].

무엇보다도 간호학에서의 성찰적 실천의 개념을 활발하게 연구해 온 Parrish와 Crookes [12]는 성찰적 실천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간호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간호에 대해 융통성 있고 개별화된 전인적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더욱 능숙하다. 둘째, 사례 깊고 체계적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잘 갖추어져 있다. 셋째,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확인하고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간호실무 수행에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간호행위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간호사의 성찰 역량은 종종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거기반 간호의 제공과 관련이 있으며, 학생과 의료진의 치명적인 실수의 발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8]. 이렇듯 성찰은 임상 환경 내에서 근거기반 실무(evidence-based practice)의 구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인 간호와 예술적 측면이 강조된 심미적 간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학문 분야의 성찰적 실천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영향으로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외 간호학에서는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한 이론적 및 경험적 탐구들이 활성화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5,7,13,14], 성찰적 실천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이나 체계적 문헌고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8,15,16]. 반면, 국내 간호학에서는 주로 성찰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성찰적 실천에 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몇몇 연구가들이 관심

을 보이고 있지만[17-19]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성찰적 사고 수준이 간호역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간호사의 높은 성찰 수준이 강조되었고, ‘reflective practice’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실무’로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국내간호에서 성찰적 실천 적용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최근에 종설 논문으로 성찰적 실천 연구를 소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의 활성화를 제안한 Lee와 Jang [10]의 연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단계의 국내 성찰 관련 간호연구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필요성을 갖고, 성찰 및 성찰적 실천 관련 국내 간호연구 문헌을 분석하고 국외 관련 연구의 주요 현황을 함께 비교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에 성찰적 실천의 활성화, 효과적 적용 및 발전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찰 관련 국내 간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간호학에 성찰적 실천의 활성화, 효과적 적용 및 발전을 위한 연구의 다양화와 확장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의 성찰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논문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내 간호학에서 성찰 및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 문헌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며,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복시 학위논문을 선택하였고, 출판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석대상 문헌에 대한 구체적인 제외기준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찰, 성찰적 실천 연구의 범주가 아닌 문헌 즉, 성찰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었으나 사실상 성찰적 사고나 성찰적 실천과는 무관한 내용의 논문,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대상이 아닌 문헌,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종설 논문이다. 또한 실행연구

(action research)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계획-실행-관찰-분석-성찰’의 나선형 과정[20]의 일부로 수행된 성찰 활동이 포함된 선행연구 논문도 제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절차는 검색어 선정, 검색 데이터베이스 선정, 검색 전략 수립, 문헌검색 수행, 분석대상 문헌 선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해 전자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DBpia, NDSL을 이용하였고, 논문검색에 사용된 주요어는 ‘간호’,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대학생’, ‘성찰’, ‘성찰적 실천’, ‘성찰적 실무’, ‘성찰 수준’, ‘성찰적 사고’였다. 검색전략으로는 주요어들을 불리언 연산자 ‘AND’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일차적으로 검색된 논문은 총 103편이었으며 이 중 중복문헌을 제외하여 남은 논문은 69편이었다. 69편 중 연구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40편을 제외하자 검색 조건을 충족시킨 논문은 총 29편이었다. 이 29편의 원본을 모두 읽으면서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의 부합여부를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위논문 4편, 학술지 출판 논문 19편의 총 23편을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3. 자료분석

1) 분석범주

자료분석을 위한 분석범주 설정을 위해 연구자 2인이 논문의 원문을 고찰하고 요약한 후, 연구의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분석범주를 결정하였다. 먼저, 성찰적 실천의 동향을 연구한 국외 논문인 Schumann Scheel 등 [8]의 연구와 Dubé와 Ducharme [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범주를 참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찰 관련 연구가 비교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최종분석 범주로 크게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analysis of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과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analysis of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으로는 사용된 성찰 관련 일반용어(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성찰 행위(reflection action), 성찰 서면방법(reflection writing method)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은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성찰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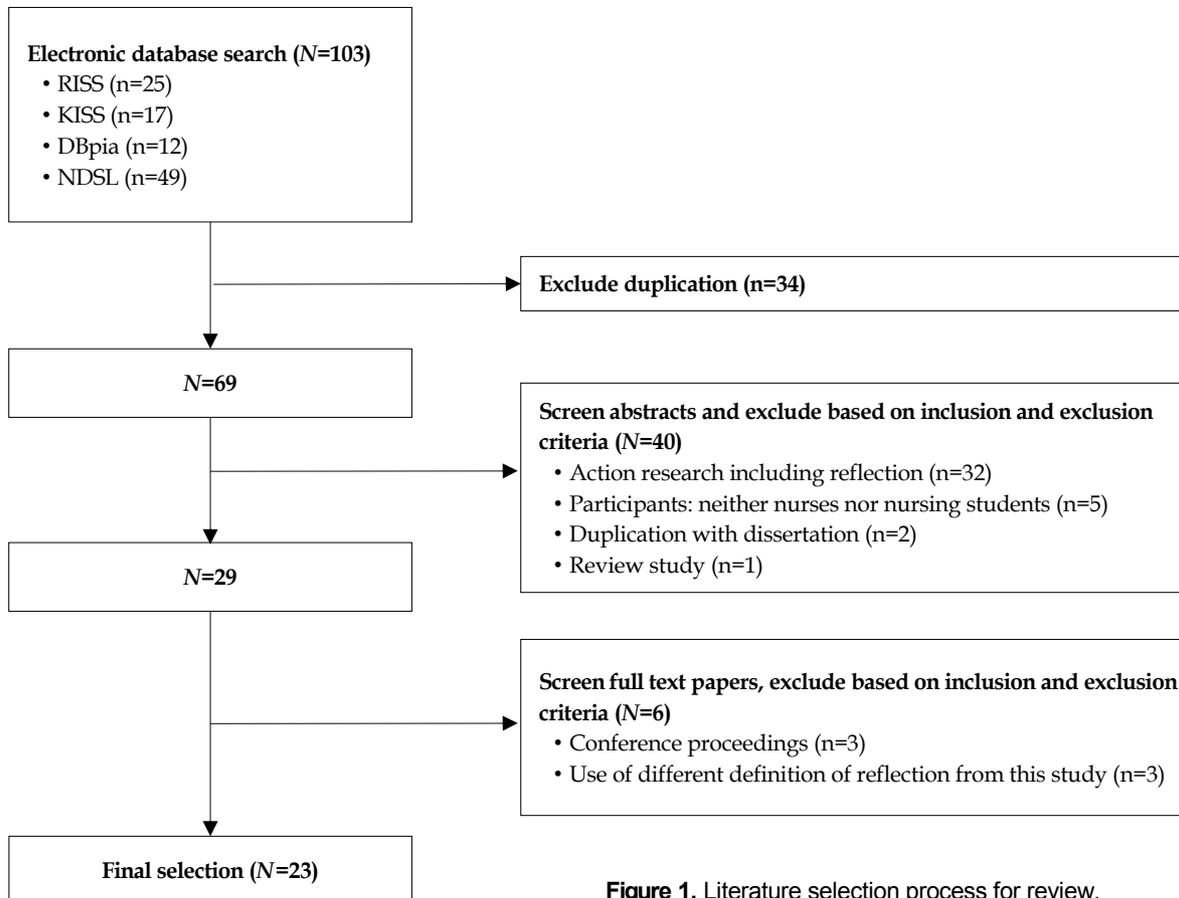


Figure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for review.

널을 이용한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dation)로 분류하였다.

2) 분석범주에 따른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범주에 따라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 및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과 함께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대상 문헌 23편이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Table 2에 출판연도, 출판유형, 저자소속, 출처, 연구방법, 연구대상, 성찰정의 여부 별로 일반적 특성을 자세히 분류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성찰 관련연구는 2000년 이전에는 없었으며 2005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2018년까지 전체 논문 수는 23편이었다. 출판연도에 따른 문헌 수는 2005~2010년 4편(17.4%), 2011~2015년 9편(39.1%), 2016~2018년 10편(43.5%)으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논문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저자소속은 대학소속의 저자만 있는 경우가 20편(8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학소속의 저자와 임상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은 1편(4.3%), 임상실무자만의 저자논문은 2편(8.7%)에 불과하였다. 출판유형은 석사학위논문 2편(8.7%), 박사학위논문 2편(8.7%), 학회지 출판논문 19편(82.6%)으로 학회지 출판이 대부분이었다. 분석대상 문헌의 학회지 출처를 살펴보면 간호교육학회지 4편(17.4%), 기본간호학회지와 디지털 융복합연구에 각각 3편(13.0%), 나머지는 다양한 학술지에 대부분 1편(4.3%)씩 발표되었다.

연구설계 유형은 양적 연구가 19편(82.6%)으로 대부분이었고 양적 연구 내에서는 유사실험연구 10편(43.5%), 서술 연구 6편(26.1%), 상관성 연구 2편(8.7%), 방법론적 연구 1편(4.3%) 순이었다. 특히 유사실험연구 10편 중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4편,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 3편,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1편,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2편이었다(Table 1 참조). 다음으로 질적 연구가 2편(8.7%)으로 내용분석 2편(8.7%)을 포함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혼합연구설계 논문이 2편(8.7%)이었다. 연구대상자 별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17편(73.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문헌이 6편(26.1%)이었다. 성찰의 정의가 되어 있는 논문은 15편(65.2%),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은 8편(34.8%)이었다.

2.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

본 연구의 국내 간호학의 성찰 관련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성찰 관련 주요변수분석 결과는 Table 3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첫째는 성찰 관련 일반용어(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둘째 성찰 행위(reflective action), 셋째는 성찰 서면방법(reflection writing method)이었다. 성찰 관련 일반용어는 총 8편(34.7%)으로 성찰 3편(13.0%), 자기성찰 4편(17.4%), 성찰적 사고수준 1편(4.3%)이었고, 성찰 행위로는 비판적 성찰탐구와 성찰 활동이 각각 1편으로 총 2편(8.6%)이었다. 마지막으로 성찰 서면방법이 총 13편(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성찰 저널(reflective journal) 7편(30.9), 나머지는 성찰일기(reflection diary), 성찰노트(reflection note), 성찰질문과 글쓰기(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자기성찰저널(self-reflection journal), 자기성찰보고서(self-reflection report), 자기성찰일지(self-reflection diary)로 각각 1편(4.3%)씩 분류되었다.

3.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을 살펴보면 Table 4에 4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듯이 첫째,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둘째, 성찰저널을 이용한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셋째,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넷째,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dation)였다.

첫째 범주로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은 6편(26.1%)으로 구체적 결과로 간호사의 성찰과 간호역량, 간호사의 성찰조건과 간호역량,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과 행복감 증진활동,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과 행복지수, 간호사의 성찰과 직무동기,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과 문화적 역량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범주로 성찰저널을 이용해 학습평가를 한 문헌은 5편(22.2%)으로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을 도구

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Author (year)	Workplace of author (s)	Publication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Definition of reflection	Key variables
Hwang & Jang (2005)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Nur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earch	39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Problem Based Learning (PBL) Reflective journal
Kwon & Park (2007)	University/college & hospital	Clinical Nurs Research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3 clinical nurses	No	Critical reflective inquiry Decision-making
Kim et al. (2009)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Fundam Nurs	Descriptive research	121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Problem Based Learning (PBL) Self-reflection journal Class evaluation
Lee & Park (2009)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20 nursing graduate students	Yes	Problem Based Learning (PBL) Reflective journal Learning activity
Kim & Jang (2013)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Nurs Adm	Descriptive research	244 clinical nurses	Yes	Reflection/Nursing competency Team learning climate Learning organization building
Lim & Park (2013)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earch	37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Communication education Self-reflection report
Yoon et al. (2013)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137 nursing students (3rd year)	No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Reflection note (group) Competency
Kim (2014)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Soc Nurs Edu	Descriptive research	93 nursing students (3rd year)	Yes	Simulation/Reflective journal Clinical judgment skills
Jang & Kim (2014)	University/college	J Korean Data Anal Soc	Descriptive research	235 clinical nurses	Yes	Nursing competency Reflective thinking levels Conditions for reflection
Kang (2015)	University/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38 clinical nurses	Yes	Self-reflection/Personal growth Professional growth
Kim (2015)	Hospital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22 clinical nurses	Yes	Reflective activity/Concept mapping Nursing competency
Cho (2015)	University/college	J Digital Convergence	Correlational research	366 nursing students (1st~4th year)	Yes	Self-reflection/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Jo & Jun (2015)	University/college	J Korea Contents Assoc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37 nursing students (2nd year)	No	Self-reflection diary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dying patients
Kim & Hong (2016)	University/college	J East-West Nurs Research	Correlational research	275 nursing students (1st~4th year)	Yes	Self-reflection/Self-esteem Empathy/Happiness index
Koo (2016)	Hospital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scriptive research	300 clinical nurses	Yes	Reflection/Work motivation Nursing competency Clinical ladder
Jho (2016)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Fundam Nurs	Quasi-experimental researc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3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Reflective journal Blended learning Meta-cogn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Table 1. Summary of the Literature (Continued)

Author (year)	Workplace of author (s)	Publication source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Definition of reflection	Key variables
Park (2016)	University/college	J Digital Convergence	Descriptive research	148 nursing students (1st~4th year)	Yes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ultural competence
Bang (2017)	University/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70 nursing students (3rd year)	No	Simulation/Debriefing Reflection questions & writing Critical thinking Clinical judgment
Jho (2017)	University/college	J Korean Data Anal Soc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7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Reflective journal Academic self-efficacy
Kim (2017)	University/college	J Digital Convergence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113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Reflective journal Self-directed practice Basic nursing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elf-efficacy
Shim et al. (2017)	University/college	J Korea Acad-Indust Coop Soc	Quasi-experimental researc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62 nursing students (4th year)	No	Simulation/Debriefing Reflection diary/Critical thinking Self-efficacy
Kim (2018)	University/college	J Edu Info and Media	Quasi-experimental research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91 nursing students (2nd year)	Yes	Movie Reflective journal Critical thinking
Song & Kim (2018)	University/college	J Korean Acad Fundam Nurs	Methodological research	340 nursing students (3rd~4th year)	Yes	Reflection/Insight Validity/Reliability

로 하여 학습 전, 후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방법에 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현상과 인식 정도 분석,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PBL 수업결과 분석, 의사소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방식과 인간관계 방식의 변화 분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전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프로그램 실시 후 반응 분석, 간호대학생의 수술 후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후 임상적 판단기술 분석 논문이 각각 1편씩이었다.

셋째 범주로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를 연구한 문헌이 11편(47.4%)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 결과를 중재 효과변수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 관련 변수가 향상되었다. 성찰저널 쓰기 활동은 간호대학원생의 웹 기반 PBL 활동에 도움을 주었고,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능력, 기본간호 수행능력, 수행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실습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영화와 성찰저널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수업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업태도, 수업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협력적 성찰일지 활동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간호역량과 비

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성찰 활동은 간호사의 간호역량과 성찰학습 수준을 향상시켰고, 비판적 성찰 탐구 훈련을 통해 신입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기술이 향상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성찰질문과 글쓰기를 실시하였을 때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및 임상판단력이 향상되었고, 성찰저널 작성 및 디브리핑을 적용한 아동간호 시뮬레이션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영화와 성찰저널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수업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되었다. 마지막 효과변수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정서가 향상되었다. 자기성찰 프로그램으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이 향상되었고 소진은 감소되었고, 자기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간호 시뮬레이션에서 사전학습, 오리엔테이션, 시나리오 구현, 성찰저널 작성 및 디브리핑을 적용하였을 때 불안이 감소되었다.

넷째 범주로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를 위한 연구문헌 1편(4.3%)으로 한국어판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 (N=23)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5~2010	4 (17.4)	
	2011~2015	9 (39.1)	
	2016~2018	10 (43.5)	
Publication type	Master's thesis	2 (8.7)	
	Doctoral dissertation	2 (8.7)	
	Journal	19 (82.6)	
Workplace of author (s)	University/college	20 (87.0)	
	University/college & hospital	1 (4.3)	
	Hospital	2 (8.7)	
Publication source	J Korean Acad Nurs	1 (4.3)	
	Clinical Nurs Research	1 (4.3)	
	J Korean Acad Fundam Nurs	3 (13.2)	
	J Korean Acad Soc Nurs Edu	4 (17.4)	
	J Korean Acad Nurs Adm	1 (4.3)	
	J Korean Data Anal Soc	2 (8.7)	
	J Digital Convergence	3 (13.2)	
	J Korea Contents Assoc	1 (4.3)	
	J East-West Nurs Research	1 (4.3)	
	J Korea Acad-Indust Coop Soc	1 (4.3)	
	J Edu Info and Media	1 (4.3)	
	Master's thesis & doctoral dissertation	4 (17.4)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19 (82.6)
		Descriptive research	6 (26.1)
Correlational research		2 (8.7)	
Methodological research		1 (4.3)	
Quasi-experimental research		10 (43.5)	
Qualitative		2 (8.7)	
Content analysis		2 (8.7)	
Mixed		2 (8.7)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2 (8.7)	
Participants	Nursing students	17 (73.9)	
	Nurses (clinical)	6 (26.1)	
Definition of reflection	Yes	15 (65.2)	
	No	8 (34.8)	

Table 3. Analysis of Key Variables Regarding Reflection (N=23)

Variables	Categories	n (%)
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Reflection	3 (13.0)
	Self-reflection	4 (17.4)
	Reflective thinking levels	1 (4.3)
	Total	8 (34.7)
Reflective action	Critical reflective inquiry	1 (4.3)
	Reflective activity	1 (4.3)
	Total	2 (8.6)
Reflection writing method	Reflective journal	7 (30.9)
	Reflection diary	1 (4.3)
	Reflection note	1 (4.3)
	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1 (4.3)
	Self-reflection journal	1 (4.3)
	Self-reflection report	1 (4.3)
	Self-reflection diary	1 (4.3)
	Total	13 (56.7)

으로 출판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6,8,16] 국내에서의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편으로 아직까지는 미약한 초기단계라고 판단된다. 특히 성찰적 실천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본 연구 분석대상 논문에서는 제외된 한편의 종설 연구[10] 외에는 전혀 없는 현실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관련 연구에서 성찰 활동이 성찰적 실천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성찰적 실천’이라는 용어보다는 ‘성찰’이라는 용어로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reflective practice’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실무’로 언급하고 있었다. 한글사전상 ‘실무’란 실제의 업무와 사무를 의미하고, ‘실천’이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볼 때 ‘reflective practice’를 ‘성찰적 실무’보다는 ‘성찰적 실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하며, 다학제간 연구를 위해서도 용어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국외에 비해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연구는 역사가 짧은 편이므로 추후 활발한 탐색과 발굴할 부분이 많은 연구영역이라고 여겨진다. 이렇듯 국외에 비해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연구는 역사가 짧은 편이므로 추후 활발한 탐색과 발굴할 부분이 많은 연구영역이라고 여겨진다.

출판유형은 석사학위논문 2편, 박사학위논문 2편, 학회지 출판논문 19편으로 학회지 출판이 대부분으로 간호교육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디지털 융복합연구 등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학회지 출판을 통해 간호교육자 및 임상실무자에게 성찰적 실천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중요성

논 의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총 23편으로 2000년 이전에는 출판되지 않았고, 2005년 Hwang과 Jang의 성찰 관련연구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논문이 10편(43.5%)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외 간호학에서의 성찰적 실천에 관한 논문은 지난 20년간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5,7,15], 성찰적 실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논문들도 정기적

Table 4. Analysis of Findings Regarding Reflection

(N=23)

Categories	Findings	Authors (year)	n (%)
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Positive relation between reflection and nursing competency (nurses)	Kim & Jang (2013)	6 (26.1)
	Positive relation between reflection/ conditions for reflection and nursing competency (nurses)	Jang & Kim (2014)	
	Positive 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nursing students)	Cho (2015)	
	Positive 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happiness index (nursing students)	Kim & Hong (2016)	
	Positive relation between reflection and work motivation/ nursing competency (nurses)	Koo (2016)	
	Positive 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Park (2016)	
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Variation in perceptions about Problem Based Learning (PBL)	Hwang & Jang (2005)	5 (22.2)
	Results of PBL classes	Kim et al. (2009)	
	Changes of communication style and relationship patterns after communication education	Lim & Park (2013)	
	Effects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Yoon et al. (2013)	
	Evaluation of clinical judgment skills after simulation training	Kim (2014)	
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Critical reflective inquiry training improved decision-making skills.	Kwon & Park (2007)	11 (47.4)
	Reflective journal writing gave moderate help to learning activities.	Lee & Park (2009)	
	Self-reflection program improved personal growth and reduced burnout.	Kang (2015)	
	Reflective activity improved nursing competency and reflective continuum.	Kim (2015)	
	Self-reflection diary enhanced the spirituali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Jo & Jun (2015)	
	Reflective journal writing enhanced meta-cognition.	Jho (2016)	
	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improve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judgement.	Bang (2017)	
	The collaborative reflective journaling was more effective in enhanc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an the individual reflective journaling.	Jho (2017)	
	Writing reflective journal improved basic nursing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elf-efficacy and practice satisfaction.	Kim (2017)	
	Applying pre-study and orientation, scenarios, reflection diary writing, and debriefing in simulation reduced anxiety, and enhanced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him et al. (2017)	
Using movie and reflective journal improved academic achievement, class attitudes, critical thinking, and class satisfaction.	Kim (2018)		
SRIS-K validation	Korean-SRIS has validity and reliability.	Song & Kim (2018)	1 (4.3)

SRIS-K=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을 인식시키는 것은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적 실천의 내용과 방법이 활발하게 탐구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배지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저자소속을 살펴보면 대학소속의 저자만 참여한 연구가 20편(87%), 대학소속의 저자와 임상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은 3편(13%)이었다. 대한간호학회지와 회원 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한국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던 Choe 등[21]의 연구에서 주저자가 대학소속(교수, 연구직, 대학원생)인 논문이 6,606편(80.7%), 임상간호사가 주저자인 논문은 1,219편(17.7%)이었음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분석논문의 대학소속 저자 참여율은 약간 높고 임상실무가 저자 참여율은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의 성찰적 실천이란 간호실무에서 비판적 사고과정을 적용하여 자신의 간호수행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시각을 향시시켜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무를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성찰적 실천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간호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임상간호사의 연구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및 간호사 본인 뿐 아니라 간호교육가 및 간호관리자들도 성찰적 실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10]. 또한 성찰 및 성찰적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소속의 저자와 임상실무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동참여연구는 성찰 관련 연구결과들이 간호현장과 교육현장에 상호 반영되고, 교육내용의 확장과 교과목 개발로도 연결시키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구대상자 별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으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보다 약 3배가 많았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문헌 중 대학소속의 저자만이 참여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볼 때, 저자에게 대상자의 선정과 접근이 용이한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 활동이나 성찰적 실천을 적용한 교육이 아직 활발하게 도입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간호사 대상의 성찰적 실천 적용의 도입 장애요인 및 확산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성찰적 실천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두 병원 근무 간호사가 대상이었음을 볼 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간호사의 성찰적 실천의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환자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 본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15], 추후 성찰적 실천 적용의 연구대상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폭 넓은 연구진행이 필요하다.

연구설계 유형을 살펴보면 양적 연구가 19편(82.6%)으로 대부분이었고 특히 양적 연구 내에서는 유사실험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2편(8.7%), 혼합연구설계 논문이 2편(8.7%)이었다. 성찰적 실천 활동이 간호대학생 및 임상간호사 조직 내에서 자기 성찰적 본성이 강조되고 개개인과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과정이 나아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찰 관련 연구는 양적, 질적 설계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간호학에서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질적 연구 및 탐색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먼저 성찰적 실천의 개념, 정의 및 용어의 일반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 어느 특정한 설계 유형을 반복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간호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찰의 정의가 되어 있는 논문은 15편(65.2%),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은 8편(34.8%)이었다. 이는 국외에서의 성찰적 실천 동향을 분석한 한 연구인 Dubé와 Ducharme [15]에서 분석대상 총 37편의 논문 중 성찰의 정의가 되어 있는 논문이 28편(75.7%),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이 9편(18.9%)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성찰의 정의가 되어 있는 논문 비율이 다소 낮은 편으로 국내 간호학에서의 성찰적 실천 관련 개념 정의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분석

본 연구대상 논문에서 국내 간호학의 성찰 관련 주요변수의 분석결과 먼저 가장 현저한 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성찰적 실천 고찰에 대한 종설 논문인 Lee와 Jang [10] 외에는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연구한 논문이 한 편도 출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외에서는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서의 성찰적 실천 적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다룬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5,15,22,23], 국내 간호교육과 임상현장에서도 성찰적 실천을 적극 도입, 활발하게 적용하여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측정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 논문에서의 성찰 관련 주요변수의 구체적 분류

를 보면 성찰 관련 일반용어(reflection-related general term), 성찰 행위(reflective action) 및 성찰 서면방법(reflection writing method), 이렇게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성찰 관련 일반용어로 성찰, 자기성찰, 성찰적 사고수준이 이용되었고, 성찰 행위로는 비판적 성찰탐구와 성찰 활동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찰 관련 주요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성찰 서면방법에는 성찰저널, 성찰일기, 성찰노트, 성찰질문과 글쓰기, 자기성찰저널, 자기성찰보고서, 자기성찰일지가 있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성찰적 실천을 주요변수로 다룬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찰 서면방법으로 주로 사용된 성찰저널과 관련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용어사용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용어사용 일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나아가 성찰적 실천이 국내 간호학에서 전문적 용어로 확립되어 간호학의 활발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학제간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은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두방법, 서면방법, 또는 두 가지의 혼합방법이 있다[15]. 본 연구의 분석논문에서는 성찰방법으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대상 논문 모두 성찰저널, 성찰일기, 성찰노트, 성찰질문과 글쓰기, 자기성찰저널, 자기성찰보고서, 자기성찰일지를 이용한 서면방법에만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그룹토의를 통해 프리젠퍼나 동료들과 함께 간호경험/학습경험을 나누거나 촉진자(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워크숍을 통해 간호상황/학습상황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두방법 또는 두 가지의 혼합방법은 적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간호실무 현장에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간호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임상간호사의 효과적인 성찰적 실천 적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있는 서면방법보다는 구두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3. 결과분석

성찰 관련연구결과분석을 보면 첫째,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reflection with other variables) 둘째, 성찰저널을 이용한 학습평가(learning evaluation using a reflective journal) 셋째,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effects of applying reflection as an intervention) 넷째,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Korean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validation),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첫째 범주로 성찰과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이 6편(26.1%)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찰 및 성찰조건이 간호역량 및 직무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논문 3편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찰과 행복감 증진활동, 행복지수 및 문화적 역량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논문이 3편이었다. 이는 임상간호사의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사고는 간호역량과 직무동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간호사들이 성찰적 사고를 지니고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부서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찰 조건인 실무환경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차원의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17-19]. 즉,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관리자와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의 이해와 가치가 인정되고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실무환경 조성이 아주 중요하다[10].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태움 또는 괴롭힘 등의 부정적 간호조직 내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한 노력도 개인 및 조직차원의 성찰 역량 개발과 성찰역량의 교육과 관리체계와의 연계, 성찰적 실무환경의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활동, 행복지수 및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범주로 성찰저널을 이용해 학습평가를 한 문헌은 모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수업 진행 중 이루어진 5편(22.2%)으로 PBL 방법에 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현상과 인식 정도, PBL 수업결과 분석, 의사소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방식과 인간관계 방식의 변화, 임상실습 전 구조화된 객관적 임상시험(OSCE) 프로그램 실시 후 반응, 수술 후 환자간호 시뮬레이션 후 임상적 판단기술을 분석한 논문이었다. 비록 총 분석대상 논문 23편 중 5편(22.2%)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성찰저널을 도구로 하여 다양한 수업의 평가를 분석하였음을 볼 때, 향후 간호교육과정에 성찰저널을 비롯한 성찰 활동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성찰을 수업평가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성찰적 실천 관련 교과목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학적 치료에 치우쳐 있는 기존 임상간호 교과목으로부터 돌봄의 간호의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고 심미적 간호를 행할 수 있는 실천 언어로서 간호영역을 확신하고 확장해 나가려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범주로 중재로서의 성찰 적용효과를 연구한 문헌들의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의 성찰 및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동향을 탐색하여 성찰적 실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 현장에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주요 시사점으로 먼저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의 간호역량, 직무동기, 임상 의사결정 기술 및 개인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학습향상을 유도하는 중요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에서의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은 전문적 간호실무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간호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간호학의 성찰적 실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어 효과적인 적용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찰적 실천의 개념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성찰적 실천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먼저 개념분석을 통해 간호영역에서의 ‘성찰적 실천’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국내 다양한 학계의 성찰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성찰적 실천’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간호학에서도 ‘성찰적 실천’이라는 용어로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면 다학제간 공동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찰 및 성찰적 실천이 다양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성찰적 실천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학습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고[24] 정서적 측면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내면의 감정변화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연구결과[23,25]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성취목표와 학습정서와의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찰적 실천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었고, 동료들과 자신의 경험과 감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본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볼 때[14,22,23], 성찰적 실천과 간호사의 정서, 감정노동(emotional labor) 또는 정서조절 및 소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현대의 융복합 시대에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구참여와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간호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간호연구와 통합, 접목한다면 결과적으로 간호학에 상당한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중재 효과변수 별로 요약하여 세 가지 부분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간호대학생에게 성찰저널 쓰기와 협력적 성찰일지 활동을 적용하였을 때, 메타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수업만족도 등의 학업 관련 변수가 향상되었다. 이들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은 성찰적 실천 적용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확인하며 미래 간호사로서 간호실무를 접하기 전에 이미 임상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며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점과 함께 성찰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24]. 둘째, 성찰질문과 성찰저널을 활용한 성찰 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성찰학습 수준과 임상 의사결정기술 향상 및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됨으로 전반적으로 간호역량과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근본으로 하는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의 적극적 활용은 결과적으로 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적인 간호실무가 양성에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10]. 마지막으로 성찰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의 소진 감소, 자기성찰일지 적용시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의 긍정적 변화 및 간호대학생의 성찰저널 쓰기 적용시 시뮬레이션에서의 불안 감소 등 전반적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정서가 향상되었다. 이는 성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룸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14,22,23].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에게 학습향상과 간호실무 향상을 위해서는 성찰이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하며 성찰적 실천 적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범주주 한국어판 성찰 관련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로 최근 들어서야 자기성찰 및 통찰력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문헌 1편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타당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간호연구에서 이 측정도구를 이용한 성찰 활동 및 성찰적 실천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본 연구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성찰측정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보완하여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에게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립된 구체적인 성찰적 실천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논문에서 실행연구의 ‘계획-실행-관찰-분석-성찰’ 과정[20]의 일환으로 성찰 활동을 포함한 선행연구논문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행연구와 성찰적 실천 적용의 구체적인 논의가 누락되었을 수 있는 한계점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성찰적 실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성찰적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다양한 부분에서의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간호사의 성찰적 실천이 환자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15], 성찰적 실천 프로그램 적용으로 간호학생 및 간호사에게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기대하는 간호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간호사의 성찰 활동은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거기반 간호를 제공과 관련이 있고[8], 성찰적 실천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 이상으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치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시킴으로써 간호실무에서의 전문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찰적 실천이 근거기반 간호와 전인 간호, 돌봄의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는 심미적 간호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성찰적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간호실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찰적 실천 촉진자(퍼실리테이터)의 양성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성찰적 실천의 효과적인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자, 간호관리자 및 병원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10]. 이들의 성찰적 실천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성찰적 실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간호사가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간호부 단위의 성찰적 실천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리라 본다. 또한 단순히 임상경력이 많다는 것과 경력발전을 통해 자기학습능력의 발달과 전문가로서 병행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간호조직은 경력간호사의 전문성 발달에 성찰적 실천역량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체계적인 체계적인 성찰적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들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간호사가 간호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제한 없이 편안하게 논의하고 간호사의 의견이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간호대학 교과과정에 성찰적 실천을 정규 교과목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국외의 여러 간호대학에서는 성찰적 실천의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이미 정규 교과목에 성찰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지만[6], 국내에서는 시물레이션 교과목에서 교육 후 디브리핑을 실시하는 수준으로 성찰

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있는 실정이다. 성찰적 실천은 간호사의 개인적 성장과 함께 개인적 가치감 및 전문적 가치감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에게 임파워먼트를 부여하는 도구가 되고 환자들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필수적인 성찰적 실천 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과 함께 상당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성찰적 실천의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하여 교육과정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간호학생에게 미래의 간호실무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성찰적 실천을 습득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간호교육과 간호실무 현장에서 성찰적 실천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이다.

REFERENCES

1. Dewey J.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2nd ed. Boston: New York D. C. Heath and Co; 1934.
2. Osterman KF. Reflective practice: A new agenda for education. *Education and Urban Society*. 1990;22(2):133-152. <https://doi.org/10.1177/0013124590022002002>
3. Schön DA.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1983.
4. Schön DA.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Toward a 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profess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7.
5. Atkins S, Murphy K. Refle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3;18(8):1188-1192.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3.18081188.x>
6. Caldwell L, Grobbel C. The importance of reflective practice in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13;6(3):319-326.
7. Gustafsson C, Asp M, Fagerberg I. Reflective practice in nursing care: Embedded assumptions in qualitativ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7;13(3):151-160. <https://doi.org/10.1111/j.1440-172x.2007.00620.x>
8. Schumann Scheel L, Peters MDJ, Meinertz Møbjerg AC. Reflection in the training of nurses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A scoping review protocol. *JBIS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and Implementation Reports*. 2017;15(12):2871-2880. <https://doi.org/10.11124/jbisrir-2017-003482>
9.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Jossey-Bass, San Francisco; 1991.
10. Lee M, Jang KS. The significance and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Nursing and Health Issues*. 2018;23(1):1-8.

11. Bulman C, Schutz S. Reflective practice in nursing. 5th ed. Hoboken: Wiley-Blackwell; 2013.
12. Parrish DR, Crookes K. Designing and implementing reflective practice programs-key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4;14(3):265-270. <https://doi.org/10.1016/j.nepr.2013.08.002>
13. Asselin ME, Schwartz-Barcott D. Exploring problems encountered among experienced nurses using critical reflective inquiry: Implications for 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2015;31(3):138-144. <https://doi.org/10.1097/nnd.0000000000000145>
14. Beam RJ, O'brien RA, Neal M. Reflective practice enhances public health nurse implementation of nurse family partnership. *Public Health Nursing*. 2010;27(2):131-139. <https://doi.org/10.1111/j.1525-1446.2010.00836.x>
15. Dubé V, Ducharme F. Nursing reflective practice: An empirical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2015;5(7):91-99. <https://doi.org/10.5430/jnep.v5n7p91>
16. Mann K, Gordon J, MacLeod A. Reflection and reflective practice 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2009;14(4):595-621. <https://doi.org/10.1007/s10459-007-9090-2>
17. Koo JS. Mediating effect of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motivation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the nursing clinical ladder among staf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6. p. 1-76.
18. Kim H, Jang KS. Comparison of reflection hierarchy, team learning climate, and learning organization building on nursing competenc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2):282-291. <https://doi.org/10.1111/jkana.2013.19.2.282>
19. Jang KS, Kim H. A study of reflective thinking levels and conditions for reflection affecting on nursing competenc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6(6):3393-3407.
20. Zuber-Skerritt O, Fletcher M. The quality of an action research thesis in the social sciences.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2007;15(4):413-436. <https://doi.org/10.1108/09684880710829983>
21. Choe MA, Kim NC, Kim KM, Kim SJ, Park KS, Byeon YS, et al.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5):484-494. <https://doi.org/10.4040/jkan.2014.44.5.484>
22. Taylor B. Identifying and transforming dysfunctional nurse-nurse relationships through reflective practice and act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1;7(6):406-413. <https://doi.org/10.1046/j.1440-172x.2001.00323.x>
23. O'Donovan M. Reflecting during clinical placement-discovering factors that influence pre-registration psychiatric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06;6(3):134-140. <https://doi.org/10.1016/j.nepr.2005.10.005>
24. Chong MC. Is reflective practice a useful task for student nurses?. *Asian Nursing Research*. 2009;3(3):111-120. [https://doi.org/10.1016/s1976-1317\(09\)60022-0](https://doi.org/10.1016/s1976-1317(09)60022-0)
25. Nielsen A, Stragnell S, Jester P. Guide for reflection using the clinical judgment mode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7;46(11):513-516.

Appendix. A List of the Literature Reviewed for the Study

- A1. Hwang SY, Jang KS. Perception about problem-based learning in reflective journals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1):65-76. <https://doi.org/10.4040/jkan.2005.35.1.65>
- A2. Park S, Kwon IG.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6):863-871. <https://doi.org/10.4040/jkan.2007.37.6.863>
- A3. Kim KJ, Yoon J, Hyoung HK. Analysis of problem based learning based on the self-reflection journals and class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9;16(4):438-448.
- A4. Lee SO, Park YS. A study on a students general recognition of web-based PBL and learning activity of students by their reflective thinking lev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2):194-204. <https://doi.org/10.5977/jkasne.2009.15.2.194>
- A5. Kim H, Jang KS. Comparison of reflection hierarchy, team learning climate, and learning organization building on nursing competenc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2):282-291. <https://doi.org/10.11111/jkana.2013.19.2.282>
- A6. Lim SJ, Park EY.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151-162.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151>
- A7. Yoon J, Kim KJ, Choi MS. The effects of OSCE appl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273-284.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2.273>
- A8. Kim EJ. Nursing students' clinical judgment skills in simulation: Using Tanner's clinical judgment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2):212-222.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212>
- A9. Jang KS, Kim H. A study of reflective thinking levels and conditions for reflection affecting on nursing competenc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 16(6):3393-3407.
- A10. Kang HJ.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elf-reflection program for intensive care unit nurses who experienced the death of pediatric pati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p. 1-150.
- A11. Kim HJ. The effect of reflective activity using concept mapping on nurses' competency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15. p. 1-133.
- A12. Cho MK.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and self-reflection in the convergence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13(7):305-313. <https://doi.org/10.14400/jdc.2015.13.7.305>
- A13. Jo MJ, Jun WH. Effects of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on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12):294-303. <https://doi.org/10.5392/jkca.2015.15.12.294>
- A14. Kim JM, Hong SK. Influence of self-reflection, self-esteem, and empathy on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6;22(2):113-120. <https://doi.org/10.14370/jewnr.2016.22.2.113>
- A15. Koo JS. Mediating effect of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motivation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the nursing clinical ladder among staf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6. p. 1-76.
- A16. Jho MY. Effects of writing reflective journal on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aking a fundamental nursing skills course applying blend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6;23(4):430-439. <https://doi.org/10.7739/jkafn.2016.23.4.430>
- A17. Park SY. Relationship between self-refle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2):345-355. <https://doi.org/10.14400/jdc.2016.14.12.345>
- A18. Bang S.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 of debriefing using reflection questions and writing with simulation of patient care after abdominal surgery[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7. p. 1-128.
- A19. Jho MY. Effects of the type of writing reflective journals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19(5):2825-2839.
- A20. Kim SO. Effects of self-directed practice through writing self-reflective journal on basic nursing performance ability, confidence in performance, learning self-efficacy and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0):293-306.
- A21. Shim GG, Son MS, Ji ES. The effectiveness of child nursing simul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 on nursing student's anxiety,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18(10):299-308.
- A22. Kim H. Effect of the fundamental nursing lessons that take advantage of the movie and the reflective journal.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018;24(1):79-94. <https://doi.org/10.15833/kafeiam.24.1.079>
- A23. Song MO, Kim 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8;25(1):1-21. <https://doi.org/10.7739/jkafn.2018.25.1.11>